



이 천 용  
임업연구원 임업연구관

## 단절된 동산 숲과 옛동산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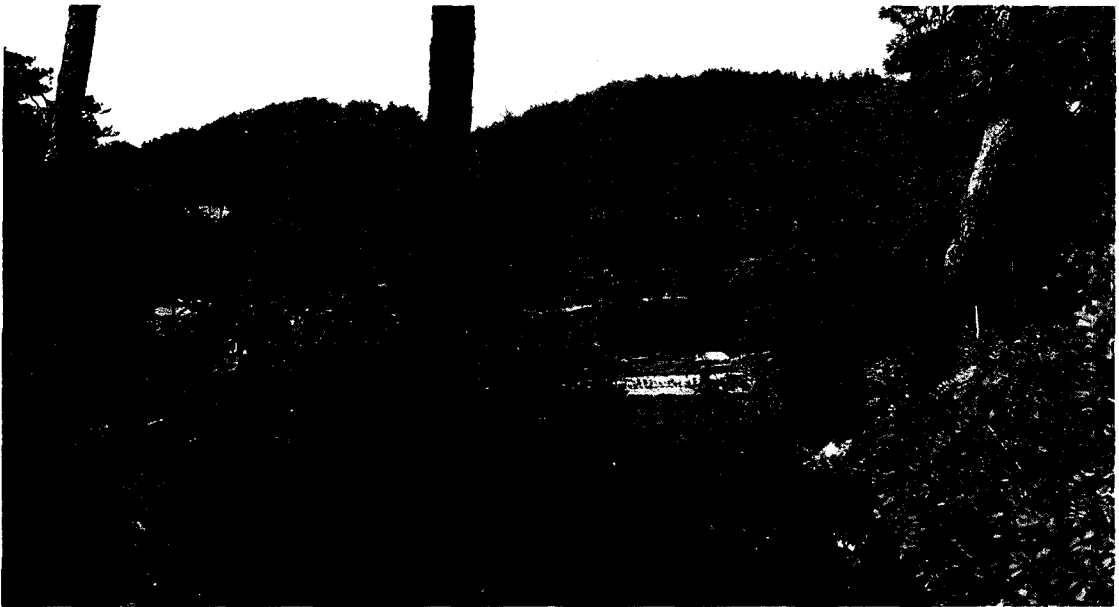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평지보다 험준한 산이 많은 산악국가이므로 마을은 깊은 산 보다는 평지와 산이 만나는 동산을 배경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 마을뒤에 있는 동산은 특별한 놀이 시설이 없었던 시절에 아이들의 놀이터요, 쉼터요, 회의장이었다. 따라서 동산에는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어 그늘을

주고 청량감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동산만 있으면 아무런 정취를 느끼지 못한다. 자연이 살아 있고 자연과 동화된 정서가 있어 향수가 어려있는 동산일 것이다.

한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근거한 인간의 삶과 생활형태를 '문화'라고 한다면 '동산 숲'은 선조의 삶과 함께 살아 온 문화의 장

소요, 추억이 어린 곳이다. 아래의 곡은 우리가 과거에 흔히 불렀던 노래로서 추억이 되살아날 만큼 서정적이고 정취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뒷동산 아지랑이 할미꽃피면,  
꽃땡기 메고놀던 옛친구  
생각난다.



▲강릉시 교동 뒷동산의 소나무림.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보니  
 놀던 달이 외롭고 흰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디갔나, 모두 다  
 어디갔나,  
 나홀로 여기서서 지난날을  
 새겨보네.”

아주 어린 시절 인천에 살았을 때의 일이다. 누나를 따라 친구들과 함께 뒷동산에 올라갔다. 그 시절에는 수도 사정이 나빠 산꼭대기에 물탱크를 만들어 물을 담아 두었다가 물을 공급하는 시설물이 있었는데 다른 동산처럼 특별한 이름이 없어서인지 이 동산은 수도국산으로 불리었다. 어른들은 개가 달을 먹는다고 하는 개기월식을 보려고 많은 동네사람들이 동산에 몰려 앉아 있었고 나도 특별한 광경을 보려고 누나가 먹을 갈아 만든 먹물을 맨유리에 발라서 해를 보았었다. 또한 달빛이 고즈넉한 밤, 문밖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울 때는 흰옷을 입고 동산 숲의 나무가지에 목숨을 꿰는 처녀 귀신 이야기가 어김없이 등장하여 머리끝을 서게 한 그 때의 기분이 먼 추억 속에서 되살아난다. 동산 숲을 뛰놀며 지내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지금은 먼 곳으로 출가하여 일년에 한 번 뵈기도 어려운 누나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일어난다.

그러나 진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노랫말은 물론 추억을 간직



▲충남 서산 안면도의 소나무 동산



▲오대산 월정사 뒤 전나무 동산

한 동산숲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들다. 삭막한 세상과 풍경에서 동산 숲은 간데 없고 회색 콘크리트의 아파트만 서 있다. 매일 전철을 갈아 타기 위하여 한강변의 한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건너편의 산을 본다. 옛날에는 저기도 추억이 서린 동산이었을까? 바위가 군데군데 드러나고 그 위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나무들이 자란다. 봄이지만 건조한 탓인지 아직 봄기운을 느끼지 못하여 여전히 생동감이 없지만 그래도 노란 개나리가 삭막함을 완화시켜 준다. 여름의 녹색도 생생한 녹색이 아니다. 어딘지 기형인 동산 숲을 보며 아쉬움 속에 왜 서울의 동산 숲은 관리를 하지 않는지 깊은 의구심이 들었다. 심지어 나무끝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월아리의 저수지 부근 전형적인 마을과 동산숲.



하늘이 맞닿는 곳이 이어지지 않고 군데군데 집들로 인하여 끊기는 모습은 녹지축을 복원하여 도시공간 속에서도 일종의 생태계를 존속시키자는 자연인의 구호를 헛되이 한다. 도로와 집들로 단절된 동산 숲은 더 이상 놀이터가 아니다.

커다란 아파트에 가려 조망하는 즐거움을 빼앗아간 광경은 이제 서울 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확산되어 그 지경이 도에 달한 듯하다. 시골사람도 물론 아파트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건축비를 낮추려고 고층아파트를 세워 동산을 가리는 개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참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서울에서는 남산을 보는데 걸림이 된다고 수천억 원을 들여 폭파해 버리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개발과 보전의 첨예한 대립은 물론 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동산 숲은 보이게 해야 한다. 내가 사는 집이 녹색 자연

에 둘러 싸여 있는 것은 동경하면서 녹색이 없을 때의 구체적인 복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하물며 다른 곳을 녹색으로 만드는 데에는 더욱 관심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의무적으로 숲을 찾는 직업 덕분에 자주 동산 숲을 지나 큰 숲으로 간다. 도시의 동산 숲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거기에 있었다. 아트마한 동산의 시작 길에는 대개 상수리나무가 많다. 마을 뒤에 심겨진 상수리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를 따려고 나무의 허리를 나무메로 쳐 멍이 들고 부풀은 모습도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 암사동 선사 유적지에서 출토될 정도로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 오고 그 시대의 중요한 음식인 도토리는 어차피 그렇게 채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잔설이 남아 있는 무덤의 북쪽을 피하여 양지에 앉아 쉴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도롱뇽알이 숨쉬는 작은 냇물도 지난다.

평야지대에도 아직까지 아담한

동산이 남아 있다. 기계화작업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걸리작거리기 때문에 속 시원히 밀어버리고 싶었을테지만 조상의 묘가 아직 있으니 마음대로 하지 못했을 까다. 넓은 들판에 앉아 있는 소나무 숲을 화룡점정(畫龍點睛)과 같이 완성미를 높이는 필수품이라고 한다면 너무 미화한 것일까. 적어도 나의 눈에는 그 한점이 풍경속에 꼭 있어야만 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점점 사라져 가는 동산 숲은 천연기념물인 새나 동물 또는 식물과는 달리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별한 이름조차도 없지만 마을이 기대는 장소로, 옛 추억을 되살리는 곳으로, 문화의 모태로 이용하였던 동산 숲은 더 이상 도시화의 명목으로 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을 살리면서 집도 짓고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우리가 돌아갈 동산 숲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